

# 불황의 연속으로 감축이 이루어진 한해



임용택

서일농장 대표

**요**새 양계업계는 가격의 이변이 생겨 옆드러  
웃음을 머금고 있다.

언제나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면 날씨도 오싹 추  
워지지만 김장철이 되어 주부들의 가계가 온통 김장  
준비에만 쏠리게 되어서 닭고기도, 달걀도 팔리지 않  
아 값이 엉망이 된다.

만일 이때 노계도태가 원활하지 못하면 체화물량  
을 계속 안게 되어 그해 겨울은 영영 전양계업계가  
도산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올 김장철에는 계란이 10월말 보다 10원씩  
이나 오르고 닭고기도 1,000원대를 계속 웃돌아 전  
양계인들은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이변이 생긴 것  
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슨 원인이 우리 양계인에게 김장철을 잊게 하고  
한숨을 돌려 겨울철을 그래도 덜 떨고 넘어가게 하  
는 것일까?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1년간 극심한 불황  
으로 양계산업은 도산 지경에 있었다.

사료를 조달치 못해 수만수의 닭을 케이지안에서  
굶어 죽게한 곳도 있었고 몇만수의 닭을 두고 야간  
도주한 양계장도 있었으며 외상사료대의 누증으로  
부동산 차압을 당하는 곳이 비일비재하였다.

또 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살아남은 농장도 어쩔  
수 없이 체위를 줄이고 감량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  
으니 이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로 이런 이변이 생긴 것이다.

이는 다시 지난 1년의 극심했던 불황이나 지난 3~  
4년을 만성적으로 이어온 우리 양계업계의 불황은  
생산과잉에 의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생산비 이하  
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통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양계산업 실정으로는 상인들이 담합해서 2중가격, 3  
중가격이 형성돼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그러나 생산조정이 잘 되어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면 가격도 잘 형성이 되려니와 상인의 담합 등  
도 무력해져서 정상적인 제 값을 다 받게 되니 우리  
는 이런날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우리의 양계산업은 늘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속  
에서 발전해 왔다. 불황이 오면 생산이 감축되고 생

산이 감축되면 호황이 함께 했다.

또 봄과 가을이란 수요기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란 비수요기가 있어 생산과 경기가 1년 중에도 조정이 되고 적어도 1년이 나쁘면 다음해는 꼭 좋아지는 산업이었기에 가난한 농민이 양계를 하면 그런대로 발전하는 그런 산업이었다. 그러나 근간 기업적으로 하는 양계인이 증가하면서 이런 반복의 법칙은 깨지기 시작했다.

기업양계인들이 불황에도 끄떡거리지 않고 오히려 다음 호황에 대비하여 생산을 늘리면 해집시같은 우리나라 양계산물의 소비시장으로는 도저히 국면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3년, 4년씩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늪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아니 빠져 나온 것만 아니라 이 늪위에 덩실 뛰어올라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계산물의 소비가 가장 위축되는 김장철의 수요에도 못미치는 생산조정이 됐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도감에만 사로잡힐 일이 아니다. 지난날의 악몽을 되새겨 오늘이 어떻게 왔나를 생각하고 내일을 설계해야 할 때다.

오늘의 이 국면은 오랜 불황으로 빚어진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미국 등 사료수출국들의 한발로 사료값에 대한 불안과 근간 노사분규의 여파로 노동의 질이나 구인난 등이 겹쳐 생산확대는 제동이 걸렸고 많은 도시근교의 양계장이 타업종으로 용도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달씩 경기가 회복되고 사료사정이 원활해지고, 부가세나 관세 등의 면감으로 사료가격전망이 밝아지며, 국제시장에서 노동력 유입 등으로 다시 사업투자심리가 살아난다면 우리 업계는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일말의 불안을 씻는데 지난 11월26일의 채란계안정화방안 심포지엄은 우리 양계인들이 진실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었다.

양계협회와 가금학회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생산관리방식에 의한 안정화방안이나 양계조합 육성에 의한 안정화방안, 계열화를 위주한 안정화방안 등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는 너무도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실로 열심히 듣고 실천방안을 찾아야 할 양계인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양계관계 인사들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만일 이 모임이 6개월전, 대란 한개에 25원하던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었다면 우리 양계인들도 관심이 대단했을텐데 벌써 그 어려움과 아쉬움을 이렇게 빨리 잊었느냐 싶어 앞날이 매우 걱정스러워진다.

이날 결과는 앞으로 '양계안정협의회'를 발족시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니 전 양계인은 이의 귀추에 관심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 1년 아니 만성적으로 지속된 3~4년씩의 양계업 불황에 대한 대처도 여기 양계안정협의회에서 만들어질 양계업 안정화방안도 모두 한두사람의 양계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기에 이의 대상이 되는 전양계인을 어떻게 조직해서 규합할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우기 금후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계산물이 감시품목에서 해제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도 전 양계인의 조직이 강화되지 않고는 안될 일이다.

또 지금까지 이곳 저곳서 구걸하듯 해서 양계산물의 홍보비에 충당하던 자조금제도도 이젠 안정기금이든, 자조금이든 가부간 결정을 짓고 우리 전 양계인이 참여해서 만들어 써야 하는 체제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이에 양계협회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돌아가 이질 집단끼리 모여, 서로 의지해서 간신히 연명이나 해가는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 양계인을 중심으로 양계인끼리 뭉쳐 양계업의 내일을 설계하고 이끄는 조직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1년간 아니 3~4년씩이나 불황에 신음했던 모든 양계인에 이젠 이런 악몽이 다시는 없도록 오늘도 같이 뭉쳐 준비하고 분전할 것을 호소한다. **양계**